

■ 치과 칼럼

치아 상실에 따른 변화

이가 빠진 후 오랫동안 수복하지 않은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가 빠져도 씹는데 지장 없으니 그냥 놔두기로 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물론 어떤 치아가 빠졌느냐에 따라 증상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우선 어떤 치아가 제일 많이 상실되는지 알아보는 데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문헌들에 따르면 사랑니를 제외하고 상악 제1대구치, 즉 위턱의 제일 큰 어금니의 상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하악 제1대구치, 상악 제2대구치, 하악 제2대구치 순으로 높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금니의 상실율은 다른 치아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이유로 잇솔질의 어려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 큰 어금니가 빠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위를 수복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동안 방치 했다고 하죠. 수차에 걸쳐 언급했듯이 치아의 위치는 주변 치아와 근육들이 이루는 힘의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치아가 빠지면 이런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위쪽과 전후 치아들은 힘을 받지 않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뒤쪽 치아는 앞으로 쓰러지고 위쪽 치아는 아래로 맹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화로운 교합의 형태를 무너뜨리며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 브릿지나 임플란트로도 수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을 상실하게 되고 악관절증이나 골근육계 이상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치아 배열의 불균형은 올바른 구강 위생법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잇몸질환이나 충치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나머지 치아들은 제 위치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어금니가 모두 상실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큰 어금니들의 역할은 주로 음식을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어금니들은 다른 치아들에 비해서 크고 또 지지를 담당하는 뿌리도 두 개에서 많게는 네 개까지 있는 것도 이런 기능을 충실하게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아들이 모두 상실되었다면 결국 남아 있는 치아들이 이 기능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가 자꾸 닳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과정이 매우 느리게 일어나면서 근육들은 그 기간 동안 적응해버리기 때문에 가끔 악관절증을 일으킨다고도 하지만 어떤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어느덧 이를 다물었을 때 치아가 상실된 부위의 위턱과 아래턱의 공간이 너무 없어 어떠한 보철물이 들어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임플란트가 심겨질 수 있겠지만 그 위에 만들어질 크라운을 위한 공간이 없어서 임플란트를 심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닳아 없어진 치아를 크라운을 하던지 아니면 교정적으로 치아를 맹출시켜서 닳아 없어진 만큼의 치아 부분을 복원시켜 올바른 교합을 재형성한 후 임플란트든지 다른 보철물을 통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공간 부족에 따른 여러 문제로 계획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치아가 상실된 경우 바로 치과로 내원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상태로 바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예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 교육

'명성이 최고'라고요? 뭐가 중한디?

아이비리그 졸업하고도 번듯한 직장을 못 잡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들어보지 못한 일명 '등보잡' 대학을 졸업하고 10만불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화려하게 일하는 사람들. 정말일까?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 www.tepi.kr)의 말을 들어보자.

2017학년도 미국 대학 얼리 지원을 앞두고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당사자인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 선택을 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는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해마다 내놓은 미국 대학 랭킹이다. 유에스 뉴스는 금년에도 예외 없이 미국 대학 순위를 발표했다.

미국 대학 순위를 내놓는 기관은 유에스 뉴스 말고도 10여 개나 된다. 이 신문은 미국 대학 랭킹 자료를 유료로 팔고 있고 이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가 내놓는 미국 대학 랭킹 자료는 정확하게 '상품'이다. 미국 교육부나 백악관이 내놓은 공인 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유에스(US)란 말이 붙어서 인지 많은 사람들은 이 자료를 교육 분야 공식 자료로 알고 있다.

정작 많은 미국 명문 대학들은 유에스 뉴스 랭킹 자료를 무시하고 있다. 물론 홈페이지에 유에스 뉴스 랭킹 몇 위라고 자랑스럽게 밝히는 대학들도 있다. 유에스 뉴스 대학 랭킹에 안달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중하위권 이하 대학들이고 정작 상위권 대학들은 무대응이다. 유에스 뉴스 미국 대학 랭킹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대학은 스티브 잡스가 다녔던 Reed College다. Hampshire College는 Test Blind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예 SAT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유에스 뉴스는 미국 대학 랭킹에서 이 대학을 빼버렸다. 보복이다. 아이비리그급 대학인 Reed College도 100위권 밖으로 내던졌다가 슬그머니 70위 권에 올려놓고 있다.

이 대학은 워낙 명문이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한 몇몇 대학들은 유에스 뉴스의 대학 랭킹을 올리기 위해 신입생의 SAT 성적을 조작해 제출했다가 뒤늦게 내부 고발자에 의해 밝혀져 망신을 당했다. 지난해 조지 워싱턴 대학이 그랬고, 에모리,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도 성적 조작을 했다가 뒤늦게 알려지자 점수를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변명을 했지만 빈축을 샀다. 껌껌이 몇 년 전 576개 대학 입학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다른 대학이 제출한 SAT 성적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91%가 "믿지 못하겠다." 고 답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지는 시종일관 유에스 뉴스의 상업적 미국 대학 랭킹에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전미 대학 카운슬러 협회의 자문을 얻어 "유에스 뉴스의 평가 항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판(Reputation) 항목은 자의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 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부모들은 유에스 뉴스의 미국 대학 랭킹 자료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미국 대학 선택의 참고 자료가 아닌 절대적 지표로 삼고 있다. 41위 대학은 50위 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한다.

유에스 뉴스 랭킹 자료가 그렇다고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자료를 잘 활용하면 상당히 유용하다. 어떻게 사용하면 나쁜 문제다. 이 자료는 대학 명성과 합격하기 어려운 난이도 순위를 보는 데는 좋은 참고 자료일 수 있으나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평가 항목 때문이다. 그래서 유에스 뉴스 자료만 보지 말고, 포브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 위크, 프린스턴 리뷰, 미 백악관 자료, 미 교육부 자료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